

이젠 친환경 인쇄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환경가치 경영'을 발표하며, 콩기름을 사용한 전단을 발행하는 등 환경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04년 '환경경영'을 선포한 롯데백화점은 광고전단을 '콩기름잉크'를 사용하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도 점내 안내문을 '재생용지'로 변경, 사용해 오고 있으며, 이 양만해도 연간 약 300 톤에 달한다. 이들 대형 업체들은 인쇄업체도 친환경기기 및 기자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바야흐로 인쇄의 친환경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요즘을 최고의 화두는 '친환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이 살아야 사람도 산다'는 너무도 당연한 명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특히 유럽연합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친환경제품이 아니면 자국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속속 실행에 옮기고 있는 터라 우리나라에서도 환경경영은 남의 일만은 아니다.

일본도 2000년 제정된 '그린구입법' 적용 이후 환경인증 제품의 구매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90%에 이르고 있다.

친환경인증은 제품인증과 시스템인증으로 나뉘는데 시스템인증의 경우 자원의 절약이나 재활용이 아닌 삼림자원을 지속 이용 가능하도록 관리·감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표1_ISO14001 인증현황(2008년 7월 현재)

	제품 인증(국내 환경마크와 유사한 인증)	시스템 인증
현황	1. 일본 : 에코마크(Eco Mark) 2. 중국 : 환경표지(環境標志) 3. 대만 : 그린마크(Green Mark) 4. 태국 : 그린라벨(Green Label) 5. 호주 : 환경라벨(Good Environmental Choice) 6. 뉴질랜드 : 환경라벨(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 ; ECNZ)	1.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본사 사무소 : 독일 본, 1993년 설립) 2. PEFC(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schemes) 인증 (본사 사무소 : 스위스 제네바, 1999년 설립)

국내에서도 그린 소비자를 겨냥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친환경상품 시장은 2004년 3조 2000억 원에서 2010년에는 16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인 단체들은 기업의 환경경영과 친환경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고, 정부도 친환경상품법을 시행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상품은 안전성 및 품질을 공인받은 제품으로 구입가격은 일반상품에 비해 다소 비쌀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효율, 절수, 폐기물 발생량 저감 등의 효과로 인하여 제품 사용 전과정을 고려한 비용은 경제적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친환경마크

친환경상품이란 제품의 생산·소비·폐기의 전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거나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시키며 유해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품질이 우수하고 경제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하며, 환경마크 및 GR마크 인증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친환경 상품은 환경마크 및 GR마크 인증 제품이다. 환경마크의 경우는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인증이며, GR(Good Recycled)마크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증이다.

표2_환경마크 및 우수재활용 인증마크

	환경마크	GR(Good Recycled)마크
로고		
정의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 할 수 있는 제품에 인증	재활용제품의 품질 보증
인증기관	친환경상품진흥원	기술표준원
인증기준	〈표2-1 참조〉	폐지의 사용 기준은 국내 폐지의 총량기준임. - 인쇄용지 : 30% - 필기용지 : 30% - 전자복사용지 : 40% 이상
인증제품수	1,169개 업체, 5,217개 제품(2007년 11월말 기준)	234개 업체, 285개 제품(2007년 11월말 기준)
홈페이지	http://www.ecoi.go.kr	http://recycling.ats.go.kr

TIP

친환경 관련 유용한 사이트

- 친환경상품 통합정보 홈페이지(www.ecoi.go.kr)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 환경마크상품의 정보 확인할 수 있는 친환경상품진흥원(www.koeco.or.kr)
- 우수재활용상품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표준원 순환자원제품 인증제도(<http://recycling.kats.go.kr>)

표2-1_환경마크 인증기준

지군	평균(g/m ²)	고지사용률(무게 %)	기타
아트지	80 이하	-	친환경 제품이지만 재생지는 아님
	81~120	10%	이상친환경 제품 이면서 재생지임
	120 초과	50% 이상	친환경 제품 이면서 재생지임
백상지	70 이하	-	친환경 제품이지만 재생지는 아님
	71~90	20% 이상	친환경 제품 이면서 재생지임
	91~120	30% 이상	친환경 제품 이면서 재생지임
	120 초과	50% 이상	친환경 제품 이면서 재생지임

제지산업과 탄소배출권

온실가스 과다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의 위험성을 인식한 전 세계는 이미 1992년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및 1997년 교토의정서를 체결하여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감축량을 의무적으로 정해놓았다. 특히 13차 유엔기후변화협약총회에서는 발리 로드맵을 채택하여 2009년 15차 총회 때까지 주요 선진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감축 목표치 설정을 강제함으로써 지구촌 환경보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2005년 2월 발효된 '교토의정서'의 이행기간(2008~2012년)이 시작되는 해다. 특히 2013년부터 시작될 '포스트 교토'에서는 개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체결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의무감축대상국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유엔개발계획의 2007/2008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보고되어 2013년 이후에는 의무감축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지금부터 준비해야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강제 부여함과 동시에 신속적인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라는 독특한 제도를 도입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간단히 말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즉 어떤 국가가 자국에 부여된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돈을 받고 팔 수 있고, 반대로 할당량을 넘겨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국가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다른 국가로부터 사들이도록 한 것이다.

온실가스 가운데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은 이산화탄소(CO₂)이기 때문에 통상 배출권은 '탄소배출권'으로 불린다. 아울러 배출 할당량은 국가별로 주어지지만 실제로 배출에 제약을 받는 것은 산업활동을 하는 일선 기업들이어서 탄소배출권 거래는 주로 기업들 사이에서 이뤄지게 된다.

